

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사업' 봉사활동 단체 63곳 선정

등록 2022.04.20 14:03:52 | 수정 2022.04.20 14:49:43

기사내용 요약

157개 시·군 선정 중 봉사 마을 선정...10월까지 활동



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농어촌공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봉사단체 63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경험·기술 등 재능을 나누는 사회봉사단체, 기관, 대학교 봉사 동아리 등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총 63곳으로 일반단체 20곳, 지역단체 7곳, 의료단체 2곳, 대학교 봉사센터 4곳, 대학생 봉사동아리 30곳 등이다.

선정된 단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157개 시·군 중에서 봉사활동 대상 마을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구길모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올해 선정된 봉사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앞으로 더 많은 분야의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